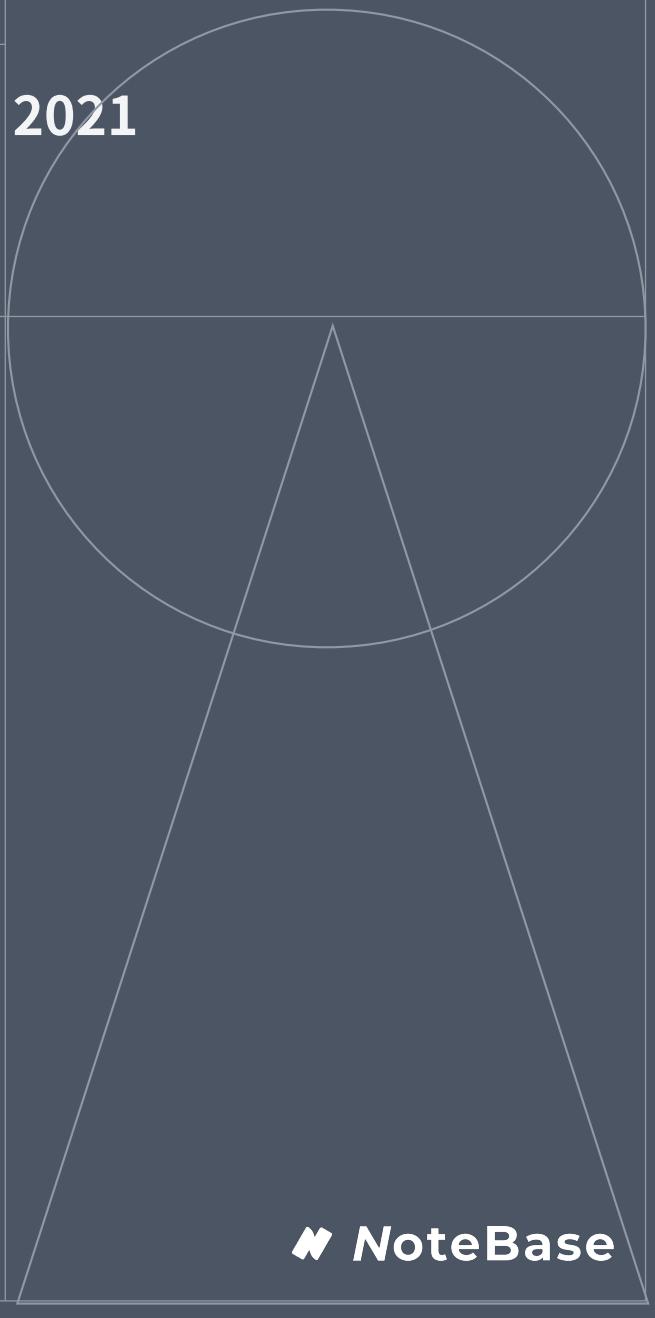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21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21

1.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것은?

①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② 우리 회사에서 수소 자동차가 개발되었다.
③ 할아버지께서 지금 막 돌아오셨다.
④ 이번 춘계 대회는 우리 학교에서 전국을 제패하였다.
⑤ 우리 학교가 운동장이 좁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밑줄 친 말이 문장에서 주어인지 부사어인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특히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의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인 경우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쓰인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핵심 개념

주어: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성분이다. 보통 주격 조사 '이/가', '께서'가 붙으며, 단체 명사에는 '에서'가 붙어 주어가 되기도 한다.
부사어: 용언을 꾸며 장소, 시간, 방법 등의 의미를 더하는 성분이다. 이때 '에서'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구별 기준: '에서'를 '이/가'로 바꾸어도 주체의 뜻이 유지되면 주어이고, 별도의 주어가 있으면서 장소를 나타내면 부사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정부에서'는 '실시한'의 주체이므로 관형절 '정부에서 실시한' 안의 주어이다. 다른 성분으로 보면 틀리며, '정부가 실시한'으로 바꾸어도 뜻이 통한다.
② O — '수소 자동차가'가 '개발되었다'의 주어이고, '우리 회사에서'는 개발이 이루어진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따라서 나머지 밑줄 부분과 문장 성분이 다르다.
③ X —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가 붙은 '할아버지께서'는 '돌아오셨다'의 주어이다. 다른 성분으로 보면 틀리며, 올바른 문장 성분은 주어이다.
④ X — '우리 학교에서'는 전국을 제패한 단체를 나타내므로 '제패하였다'의 주어이다. 다른 성분으로 보면 틀리며, '우리 학교가 전국을 제패하였다'로 바꾸어도 뜻이 통한다.
⑤ X — 주격 조사 '가'가 붙은 '우리 학교가'는 '좁다'의 주어이다. 다른 성분으로 보면 틀리며, 올바른 문장 성분은 주어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④의 '에서'를 모두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정부'와 '우리 학교'처럼 단체를 나타내는 말 뒤의 '에서'는 그 단체가 행동의 주체일 때 주격 조사로 쓰일 수 있다. ②에는 이미 '수소 자동차가'라는 주어가 있고 '우리 회사에서'는 장소만 나타낸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서술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담당하는 주체를 찾는다. '에서'가 붙은 단체가 그 주체이고 '이/가'로 바꿀 수 있으면 주어로 판단한다. 문장에 별도의 주어가 있고 '에서'가 동작의 장소를 나타내면 부사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단체가 행동하면 '에서'도 주격, 장소만 나타내면 부사격이다.

NoteBase

2. 우리말의 어법에 맞고, 의미가 정확한 문장은?

① 지하철 공사가 이제 시작됐으니, 언제 개통될지는 불투명하다.

②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③ 그 문제를 논의하자면 오후에는 팀원 전체가 모여 회의를 가질 겁니다.

④ 다행히 비상문이 열려져 있어 인명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⑤ 선배가 농담으로 한 말이 그에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문장 성분과 서술어의 호응, 연결 어미의 의미, 어휘의 자연스러운 결합, 불필요한 피동 표현, 문장 안의 논리 관계를 종합하여 어법과 의미가 모두 정확한 문장을 가려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확한 문장은 문법 형식만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앞뒤 내용의 논리 관계와 어휘 간의 의미 호응도 자연스러워야 한다. 특히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며',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조건은 '-려면'으로 나타내고, 상태를 나타낼 때에는 불필요한 이중 피동을 피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공사가 이제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언제 개통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단정하여 원인과 결과를 연결한 부분이 의미상 정확하지 않다. 틀린 표현은 '이제 시작됐으니'이며, 개통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근거를 밝혀 '개통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언제 개통될지는 알 수 없다'와 같이 고치는 것이 정확하다.

② X
'장점을 보완하다'는 어휘의 결합이 자연스럽지 않다. 보완은 모자라거나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것이므로, '이 제품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문맥은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나타내므로 '논의하자면'보다 목적이나 의도의 조건을 나타내는 '논의하려면'이 알맞다. '그 문제를 논의하려면 오후에 팀원 전체가 모여 회의를 해야 한다'와 같이 고친다.

④ X
'열려져'는 '열리다'에 다시 '-어지다'를 붙인 불필요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다행히 비상문이 열려 있어 인명 피해가 크지 않았다'로 고친다.

⑤ O
'선배가 농담으로 한 말'이 원인이 되어 '그'가 큰 상처를 입었다는 뜻이 분명하다. 주어인 '말이'와 서술어 '상처를 입혔다'의 호응도 자연스러워 어법과 의미가 모두 정확하다.

오답 포인트

①처럼 겉으로 자연스럽게 읽히더라도 원인과 결과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②의 '장점을 보완하다', ③의 '논의하자면', ④의 '열려져'처럼 익숙하게 쓰이는 표현도 어휘 호응, 조건의 의미, 피동 표현을 각각 따져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는지 확인하고, 이어서 연결 어미가 나타내는 관계가 문맥과 맞는지 살핀다. 그다음 어휘끼리 자연스럽게 결합하는지, 피동이나 사동 표현이 겹치지 않는지, 앞뒤 내용의 인과 관계가 정확한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한다. 목적의 조건은 '-려면', 열린 상태는 '열려 있다'로 나타낸다.

NoteBase

3. 띄어쓰기 원칙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사는 단어가 아니므로 앞말과 띄어 쓰지 않는다.
② 어미는 단어가 아니므로 앞말과 띄어 쓰지 않는다.
③ 접미사는 단어가 아니므로 앞말과 띄어 쓰지 않는다.
④ 파생어는 한 단어이므로 구성 요소를 띄어 쓰지 않는다.
⑤ 합성 명사는 한 단어이므로 구성 요소를 띄어 쓰지 않는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어 여부와 실제 띄어쓰기 원칙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히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면서도 앞말에 붙여 쓴다는 예외가 핵심이다.

핵심 개념

조사는 문법적 관계나 뜻을 더하는 단어이지만 앞말에 붙여 쓴다. 어미와 접미사는 단어가 아니므로 앞말이나 어근에 붙여 쓴다. 파생어와 합성어는 둘 이상의 구성 요소가 결합해 만들어진 하나의 단어이므로 그 내부를 띄어 쓰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조사는 단어가 아니므로'가 틀렸다. 조사는 단어이지만 띄어쓰기에서는 예외적으로 앞말에 붙여 쓴다. 올바르게는 '조사는 단어이지만 앞말과 띄어 쓰지 않는다'이다.
② O — 어미는 단어가 아니며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③ O — 접미사는 단독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어근 뒤에 붙어 새 단어를 만드는 요소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④ O —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단어이므로 구성 요소를 띄어 쓰지 않는다.
⑤ O — 합성 명사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단어이므로 구성 요소를 띄어 쓰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단어이면 띄어 쓴다'는 일반 원칙만 적용하면 ①을 맞는 설명으로 오해하기 쉽다. ①의 함정은 조사도 단어이지만 앞말에 붙여 쓴다는 예외를 '단어가 아니다'로 바꾼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해당 요소가 단어인지 판별한 뒤 실제 띄어쓰기 원칙을 적용한다. 조사는 단어 여부와 관계없이 앞말에 붙여 쓰고, 어미·접사는 독립된 단어가 아니므로 붙여 쓰며, 파생어·합성어의 내부도 띄어 쓰지 않는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조사는 단어지만 붙여 쓰고, 어미·접사는 단어가 아니어서 붙여 쓴다. 파생어·합성어는 하나의 단어이다.

NoteBase

4. 밑줄 친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어저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 네 행색(行色) 보아하니 군사도망(軍士逃亡) 네로고나
> ㉠요상(腰上)으로 볼작시면 베적삼이 ㉡깃만 남고
> 허리 아래 굽어보니 헌 잠방이 노닥노닥
> 곱장 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 십리(十里) 길을 ㉣헐레 가니 몇 리 가서 업쳐지리
> 내 고을의 양반(兩班) 사람 타도타관(他道他關) 옮겨 살면
> 천(賤)이 되기 상사여든
> 본토군정(本土軍丁) 싫다 하고 자네 또한 도망(逃亡)하면
> 일국일토(一國一土) 한 인심(人心)에 근본(根本) 숨겨 살려 한들
> 어데 간들 면할손가
> 차라리 네 사던 곳에 아모케나 뿌리 박여
> 칠팔월(七八月)에 채삼(採蔘)하고 구시월(九十月)에 돈피(獤皮) 잡아
> 공채신역(公債身役) 갚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 함흥북청(咸興北靑) 홍원(洪原) 장사 돌아들어 잠매(潛賣)할 제
> 후가(厚價) 받고 팔아 내어 살기 좋은 너른 곳에
> 가사전토(家舍田土) ㉤고쳐 사고 가장집물(家藏什物) 장만하여
> 부모처자(父母妻子) 보전(保全)하고 새 즐검을 누리려믄
>
> - 지은이 모름, 「갑민가」에서 -

① ㉠은 '허리 위'라는 뜻이다.

② ㉡은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목에 둘러대서 앞에서 여밀 수 있도록 된 부분'을 의미한다.

③ ㉢은 '절름발이'를 의미한다.

④ ㉣은 '헐레벌떡'의 줄임 말로, '숨을 가쁘고 거칠게 몰아쉬는 모양'을 의미한다.

⑤ ㉤은 '못 쓰게 된 것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는 뜻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전 시가에 쓰인 어휘의 뜻을 앞뒤 문맥에 맞게 파악하는 능력을 묻는다.

NoteBase

핵심 개념

문맥적 의미는 낱말의 현대적·일반적 뜻만으로 정하지 않고, 그 낱말과 호응하는 말과 장면 전체를 함께 살펴 확정한다. 특히 고어는 오늘날과 형태가 같아도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이 작품의 '고쳐'는 '수선하여 바로잡다'가 아니라 '다시, 새로'라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요상(腰上)'은 한자 뜻 그대로 '허리 위'를 가리킨다. 베적삼이 허리 위에 불쑥 나온 모습을 말한다.
② O — '깃'은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목에 둘러대어 앞에서 여밀 수 있게 만든 부분이다. 옷이 몹시 해져 베적삼에는 깃만 남았다는 문맥이다.
③ O — '전태발이'는 다리를 절어 걷는 사람, 곧 '절름발이'를 뜻한다. 앞의 '곱장 할미'와 함께 고단한 백성의 모습을 나타낸다.
④ O — '헐레'는 '헐레벌떡'의 준말로, 숨이 차서 가쁘고 거칠게 몰아쉬는 모양을 뜻한다. 여러 리를 황급히 달려가는 장면과 어울린다.
⑤ X — '고쳐'를 '못 쓰게 된 것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로 풀이한 부분이 틀렸다. '가사전토 고쳐 사고'에서 '고쳐'는 '다시' 또는 '새로'라는 뜻이므로, 올바른 풀이는 '집과 논밭을 다시 사다'이다.

오답 포인트

⑤의 '고쳐'를 현대어 '고치다'의 일반적 의미인 '수선하다'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고쳐'가 목적어인 '가사전토'를 직접 수선한다는 해석은 '사고'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 여기서는 '다시 사다'로 연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어가 현대어와 같은 형태로 보이면 현대적 뜻을 바로 대입하지 않고, 뒤의 서술어와 자연스럽게 호응하는지 확인한다. '고쳐 사고'처럼 다른 동작 앞에서 쓰이면 '다시 그 동작을 하다'라는 의미일 가능성을 살핀다.

암기 포인트

고어 '고쳐'는 문맥에 따라 '다시·새로'의 뜻으로 쓰인다. '고쳐 사고'는 '수선해서 사고'가 아니라 '다시 사고'이다.

NoteBase

5.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전략)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 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 김종길, 「성탄제」에서 -

① 색채의 대비를 통한 비극적 정조가 두드러진다.
② 촉각적 표현으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다.
③ 전통을 과감히 부정하는 미래지향적 전망을 보여준다.
④ 공간적 동질감이 시적 화자의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⑤ 근원적 사랑의 상실이라는 현상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의 감각적 심상과 시·공간의 대비가 화자의 정서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묻는다.

핵심 개념

감각적 심상은 시각·청각·촉각 등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을 통해 대상과 정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다. 이 시에서는 '산수유 붉은 알알'의 시각적 심상과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촉각적 심상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선명하게 형상화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눈 속'의 흰색과 '산수유 붉은 알알'의 붉은색이 색채 대비를 이루지만, 이를 통해 드러나는 정서는 '비극적 정조'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아픈 어린 자식을 위해 산수유를 구해 온 아버지의 사랑과 그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난다.

② O
'산수유 붉은 알알'은 시각적 심상이고,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은 촉각적 심상이다. 이러한 감각적 표현은 성인이 된 화자가 떠올리는 아버지의 모습과 그리움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전통을 과감히 부정하는 미래지향적 전망'이다. 올바르게는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현재의 도시에서 과거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 사랑을 그리워하는 회고적 태도가 나타난다.

④ X
틀린 표현은 '공간적 동질감'이다. 올바르게는 현재의 '성탄제 가까운 도시'와 과거 아버지와의 기억이 이어진 공간이 대비되며, 그 대비 속에서 화자의 그리움이 부각된다.

⑤ X
틀린 표현은 '근원적 사랑의 상실이라는 현상'이다. 시는 사랑의 상실이라는 일반적 현상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눈과 산수유의 연상을 통해 아버지가 베푼 사랑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순간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실제 색채 대비가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럴듯하지만 정서를 '비극적'이라고 과장한다. ③·④·⑤도 각각 '미래지향적 전망', '공간적 동질감', '근원적 사랑의 상실'처럼 작품의 구체적 정서와 맞지 않는 추상적 표현을 붙인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감상 선지는 표현 기법의 존재만 확인하지 않고 그 기법이 실제로 형성하는 정서까지 함께 대조한다. 감각어는 어느 감각인지, 시·공간은 대비되는지, 정서는 작품 속 구체적 시어로 뒷받침되는지를 차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붉은 산수유는 시각, 서느런 옷자락은 촉각이며, 두 심상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다.

NoteBase

6.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① 경어체를 통해 진리 탐구의 경건한 자세를 보여준다.

② 의문형 문장을 통해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③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시의 주제를 명확히 드러낸다.

④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의 전개가 돋보인다.

⑤ 동일한 통사 구조는 시상을 통일하는 효과를 지닌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의문형 문장의 반복, 경어체, 시간 이미지, 동일한 통사 구조가 시의 분위기와 주제 형성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설의적 의문은 실제 답을 요구하지 않고 화자의 정서나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 시는 '누구의 …입니까'라는 질문을 거듭하지만 답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알 수 없는 궁극적 존재를 향한 경건한 탐구와 동경을 드러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따라서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문답 형식'과 '답 없는 의문문의 반복'을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누구의 …입니까'와 같은 높임의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궁극적 존재와 진리를 탐구하는 화자의 경건하고 공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② O — 각 연이 답을 알 수 없는 물음으로 끝나므로 대상의 정체가 확정되지 않고, 신비롭고 명상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
③ X — 틀린 표현은 '묻고 답하는 형식'과 '주제를 명확히 드러낸다'이다. 이 시에는 화자의 물음만 반복될 뿐 그에 대한 대답이 제시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답 없는 의문형 문장을 반복하여 알 수 없는 궁극적 존재를 향한 동경과 탐구의 태도를 드러낸다'이다.
④ O — '푸른 하늘'의 밝은 이미지에서 '저녁놀'을 거쳐 마지막의 '밤'으로 이어지는 시간 이미지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⑤ O —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작은 시내는 … 누구의 노래입니까'처럼 '자연물·현상은 누구의 무엇입니까'라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여러 심상을 하나의 탐구 과정으로 통일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의문형 문장이 많다는 사실을 '문답 형식'으로 잘못 바꾼 선지이다. 문답 형식이 성립하려면 질문뿐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대답도 있어야 한다. 이 시는 제목처럼 끝내 답을 알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하므로, 주제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기보다 반복되는 물음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의문형 표현이 나오면 먼저 실제 대답이 제시되는지 확인한다. 대답이 있으면 문답 구조를, 대답 없이 질문만 이어지면 설의적 강조·신비감·탐구나 동경의 정서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반복되는 문장의 뼈대와 시간 표지의 변화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누구의 …입니까'의 반복은 답을 주는 문답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존재를 향한 경건한 물음이다.

NoteBase

7.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유전자의 (㉠)을/를 이용하여 먼 과거까지 들여다볼 방법이 있다. 한 종의 유전자 풀은 과거 특정 환경에서 살아남은 서로 (㉡) 카르텔이다. 이는 그 환경에 일종의 (㉢)을 남긴다. 지식이 있는 유전학자라면 한 동물의 (㉣)로부터 그 조상이 살았던 환경을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 원칙대로라면, 두더지의 DNA는 축축하고 깜깜하며, 지렁이 냄새, 딱정벌레 애벌레 냄새로 가득한 지하 세계를 드러내야 한다. 우리가 읽어낼 줄만 안다면 아라비아낙타의 DNA에는 고대의 사막, 모래바람, 사구, 목마름이 코딩되어 있을 것이다.

	㉠	㉡	㉢	㉣
①	사상	협력하는	음각 도장	유전체
②	정보	경쟁하는	양각 도장	유전체
③	사상	경쟁하는	음각 도장	생태
④	정보	협력하는	음각 도장	유전체
⑤	사상	협력하는	양각 도장	생태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장 사이의 의미 관계와 비유의 방향을 파악하여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전자는 생물이 살아남아 온 과거 환경에 관한 '정보'를 담는다. 한 종의 유전자 풀은 생존을 위해 서로 어울려 기능한 '협력하는 카르텔'이며, 과거 환경의 모습을 거꾸로 드러내는 '음각 도장'을 남긴다. 유전학자는 한 동물의 유전 정보 전체인 '유전체'에서 그 조상이 살았던 환경을 읽어 낼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의 '사상'이 틀렸다. 과거를 들여다보는 데 이용하는 것은 유전자가 담고 있는 정보이므로 '정보'가 알맞다. 올바르게 고치면 '정보-협력하는-음각 도장-유전체'이다.
② X — ㉡의 '경쟁하는'과 ㉢의 '양각 도장'이 틀렸다. 함께 살아남아 하나의 유전자 풀을 이룬 유전자들은 '협력하는' 관계이며, 환경의 흔적을 반대 모양으로 남긴다는 비유에는 '음각 도장'이 알맞다. 올바르게 고치면 '정보-협력하는-음각 도장-유전체'이다.
③ X — ㉠의 '사상', ㉡의 '경쟁하는', ㉣의 '생태'가 틀렸다. 각각 '정보', '협력하는', '유전체'로 고쳐야 한다. 올바른 연결은 '정보-협력하는-음각 도장-유전체'이다.
④ O — 유전자의 '정보'를 통해 과거를 읽고, 유전자 풀을 서로 '협력하는' 카르텔로 보며, 과거 환경의 '음각 도장'을 한 동물의 '유전체'에서 읽는다는 문맥이 모두 자연스럽다.
⑤ X — ㉠의 '사상', ㉢의 '양각 도장', ㉣의 '생태'가 틀렸다. 각각 '정보', '음각 도장', '유전체'로 고쳐야 한다. 올바른 연결은 '정보-협력하는-음각 도장-유전체'이다.

오답 포인트

'카르텔'을 경쟁 집단으로만 떠올리면 ㉡을 '경쟁하는'으로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같은 유전자 풀 안의 유전자들이 함께 살아남았다는 점을 강조하므로 '협력하는'이 알맞다. 또한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환경이 남긴 반대 모양의 흔적이라는 비유이므로 '음각 도장'을 선택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빈칸을 따로 보지 않고 앞뒤의 호응을 연결한다. '읽어 내다'와 호응하는 대상은 정보이고, '함께 살아남은 유전자 풀'은 협력 관계이며, 그 정보를 읽는 직접 대상은 한 동물의 유전체이다.

암기 포인트

유전자의 정보 → 협력하는 유전자 풀 → 환경의 음각 도장 → 유전체에서 과거를 읽는다.

NoteBase

8.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자료를 꼼꼼이 정리해 두었다.
② 장군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③ 이웃들은 나를 따뜻이 반겨주었다.
④ 그는 우리 어머니를 매번 깍듯이 대했다.
⑤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샅샅이 살펴보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부사형 접미사 '-이'와 '-히'의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와 '-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부사를 만든다. 일반적으로 '-하다'가 붙는 말은 '-히'로 적지만, 어근이 'ㅅ' 받침으로 끝나는 말은 '-이'로 적는다. 같은 말이 겹쳐진 명사 뒤에도 '-이'를 붙인다. 따라서 '꼼꼼하다'는 '꼼꼼히', '따뜻하다'와 '깍듯하다'는 각각 '따뜻이'와 '깍듯이', '샅샅'은 '샅샅이'로 적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꼼꼼이'가 잘못되었다. '꼼꼼하다'에서 나온 부사는 '-히'를 붙여 '꼼꼼히'로 적으므로, '이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두었다.'가 옳다.
② O — '헛되이'는 '헛되다'의 어간 '헛되-'에 '-이'가 붙은 올바른 표기이다.
③ O — '따뜻이'는 'ㅅ' 받침으로 끝나는 어근 '따뜻-'에 '-이'를 붙인 올바른 표기이다.
④ O — '깍듯이'는 'ㅅ' 받침으로 끝나는 어근 '깍듯-'에 '-이'를 붙인 올바른 표기이다.
⑤ O — '샅샅이'는 같은 말이 겹쳐진 명사 '샅샅' 뒤에 '-이'를 붙인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 포인트

'꼼꼼하다'처럼 '-하다'가 붙는 말은 무조건 '-이'로 적는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따뜻하다·깍듯하다'도 모두 '-히'로 적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따뜻-·깍듯-'처럼 어근이 'ㅅ' 받침으로 끝나면 '-이'를 붙이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본형과 어근의 받침을 확인한다. '-하다'가 붙는 말은 보통 '-히'를 쓰되, 어근이 'ㅅ' 받침으로 끝나면 '-이'를 쓰고, 같은 말이 겹쳐진 명사 뒤에도 '-이'를 쓴다.

암기 포인트

꼼꼼히는 '히', 따뜻이·깍듯이·샅샅이는 '이'이다.

NoteBase

9. <보기>에서 (가)~(마)를 문맥에 맞게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 기>

(가) 외부 불경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세금 제도는 취지가 좋다고 쉽게 정착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선한 의도로 개입한다고 해서 늘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외부 효과를 근거로 정부가 개인의 선택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는 논쟁거리이다.

(나) 외부 효과란 누군가의 행동이 타인에게 이익이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외부 효과가 타인에게 이익을 주면 외부 경제(긍정적 외부 효과), 반대로 손실을 끼치면 외부 불경제(부정적 외부 효과)가 된다. 예컨대 꽃집에서 화사한 화분을 진열해 놓은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낡은 트럭에서 내뿜는 시커먼 매연은 불편을 초래한다. 꽃집은 타인에게 외부 경제를, 매연을 내뿜는 트럭은 외부 불경제를 제공한 것이다.

(다) 피구세 중에서도 국민 건강과 복지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특정 품목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물리는 세금을 죄악세라고 부른다. 일부 국가에서 논의되었던 설탕세, 소다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설탕, 탄산음료 등과 같은 식품은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의료 수요 증가, 건강 보험 재정 악화 등의 부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므로 이를 억제하고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라) 따라서 외부 불경제를 법으로 규제하거나 수혜자에게 비용(세금)을 물려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 외부 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을 '피구세'라고 부른다. 피구세는 첫 제안자인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피구의 이름을 딴 것으로, 외부 불경제를 유발한 당사자에게 세금을 물림으로써 외부 효과를 내부화, 즉 본인 부담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다. 환경세, 교통세 등이 피구세의 범주에 속한다.

(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외부 경제는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좋지만 타인에게는 해를 끼치는 외부 불경제는 심각한 갈등과 비용을 유발하기에 늘 사회적 관심사가 된다. 부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공해와 환경 문제이다. 술, 담배, 비만 유발 식품 등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것들은 즐기는 자신은 좋을지 몰라도, 과할 경우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비용을 낳는다.

① (가)-(나)-(라)-(다)-(마)

② (가)-(나)-(라)-(마)-(다)

③ (나)-(마)-(라)-(가)-(다)

④ (나)-(마)-(라)-(다)-(가)

⑤ (마)-(나)-(라)-(다)-(가)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문단의 중심 화제와 접속 표현을 근거로 외부 효과의 개념 정의에서 사례·대책·구체적 세금·정부 개입의 한계로 이어지는 순서를 찾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나) 외부 효과의 뜻을 밝히고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의 사례를 든다.
(마) 앞서 제시한 두 유형 가운데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의 성격을 대조하고, 부정적 외부 효과의 대표 사례를 제시한다.
(라) '따라서'로 (마)의 부정적 외부 효과 문제를 이어 받아 규제와 세금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피구세를 설명한다.
(다) '피구세 중에서도'로 (라)의 피구세를 직접 이어 받아 죄악세라는 구체적 유형을 설명한다.
(가) 외부 불경제에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리한 뒤, 세금 제도와 정부 개입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덧붙인다.

왜 이 순서인가: 개념을 먼저 정의해야 유형별 사례를 이해할 수 있고, 부정적 외부 효과가 제시되어야 '따라서'라는 해결책이 나오며, 피구세가 소개되어야 그 하위 유형인 죄악세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나)-(라)-(다)-(마)는 (라)의 '따라서'가 받아야 할 부정적 외부 효과의 문제가 (마)에서 아직 제시되지 않았고, (마)를 대책 설명 뒤에 놓았다는 점이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나)-(마)-(라)-(다)-(가)이다.

② X — (가)-(나)-(라)-(마)-(다)는 (라)를 원인과 사례를 제시하는 (마)보다 앞세웠고, 결론적 성격의 (가)를 첫머리에 둔 점이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나)-(마)-(라)-(다)-(가)이다.

③ X — (나)-(마)-(라)-(가)-(다)는 피구세의 구체적 유형을 뜻하는 (다)를 피구세를 설명한 (라) 바로 뒤에 두지 않고, 결론적 유보인 (가)를 사이에 넣은 점이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나)-(마)-(라)-(다)-(가)이다.

④ O — (나)의 개념 정의와 사례에서 시작하여 (마)의 긍정·부정 외부 효과 대조, (라)의 피구세, (다)의 죄악세, (가)의 정부 개입 필요성과 한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⑤ X — (마)-(나)-(라)-(다)-(가)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의 개념이 충분히 제시되기 전에 (마)의 평가와 사례가 먼저 나온 점이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정의와 기본 사례를 제시한 (나)를 (마)보다 앞에 두어 (나)-(마)-(라)-(다)-(가)로 배열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가)는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말하므로 앞부분처럼 보이지만, 곧바로 세금 제도의 정착과 정부 개입의 한계를 함께 언급하므로 글 전체를 정리하는 마지막 문단이다. 또한 (라)의 '따라서'는 (마)의 부정적 외부 효과를, (다)의 '피구세 중에서도'는 (라)의 피구세를 각각 직접 이어 받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 배열 문제에서는 먼저 개념을 정의하는 문단을 찾고, '따라서' 같은 인과 접속어의 앞 내용을 확인한 뒤, '그중에서도'처럼 앞 문단의 특정 개념을 좁혀 가는 표현을 연결한다. 마지막에는 앞 내용을 종합하거나 한계를 덧붙이는 문단을 둔다.

암기 포인트

정의 (나) → 유형 대조 (마) → 대책·피구세 (라) → 구체적 죄악세 (다) → 개입의 한계 (가)이다.

NoteBase

10. 다음 중 한 가지 뜻으로만 해석되는 것은?

① 영수는 모임에 혼자 안 갔다고 말했다.
② 그릇의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가열하지 마세요.
③ 숲속에서 사슴 한 마리가 포수에게 쫓긴다.
④ 동생은 웃으며 떠나는 누나를 배웅했다.
⑤ 군사 기밀을 적에게 넘긴 대령의 애인에 관한 이야기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장 성분의 수식 관계나 부정의 범위에 따라 둘 이상의 뜻이 생기는 구조적 중의성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구조적 중의성은 같은 문장 안에서 수식하는 대상이나 부정되는 범위를 달리 잡을 때 둘 이상의 뜻으로 해석되는 현상이다. 수식어가 어느 말과 연결되는지, '안'이나 '말다'가 어디까지 부정하는지를 확인하면 중의성을 판별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혼자 안 갔다'의 부정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 '영수만 모임에 가지 않았다'와 '영수는 혼자 가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갔다'로 해석될 수 있다. 한 가지 뜻으로 고치면 '영수는 다른 사람들은 갔지만 자신만 모임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는 '영수는 모임에 다른 사람과 함께 갔다고 말했다'가 된다.

② X
'다 녹을 때까지'가 '가열하다'와 결합하는 방식과 금지 표현 '가열하지 마세요'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 '얼음이 모두 녹는 시점까지 가열하지 않는 것'과 '얼음이 모두 녹을 정도로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가지 뜻으로 고치면 '그릇의 얼음이 다 녹기 전에는 가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는 '그릇을 가열하되 얼음이 다 녹기 전에 가열을 멈추어야 한다'가 된다.

③ O
'사슴 한 마리'가 쫓기는 대상인 주어이고, '포수에게'가 쫓는 행위자를 나타낸다. 따라서 숲속에서 사슴 한 마리가 포수의 추격을 받는다는 한 가지 뜻으로만 해석된다.

④ X
'웃으며'의 행동 주체가 생략되어 있어 동생이 웃으며 배웅했다는 뜻과 누나가 웃으며 떠났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가지 뜻으로 고치면 '웃고 있는 동생은 떠나는 누나를 배웅했다' 또는 '누나는 웃으며 떠났고, 동생은 그런 누나를 배웅했다'가 된다.

⑤ X
'군사 기밀을 적에게 넘긴'이 '대령'을 꾸미는지, 전체 명사구의 중심어인 '애인'을 꾸미는지 분명하지 않다. 대령이 기밀을 넘긴 경우와 대령의 애인이 기밀을 넘긴 경우로 해석될 수 있다. 한 가지 뜻으로 고치면 '군사 기밀을 적에게 넘긴 대령에게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에 관한 이야기다' 또는 '대령의 애인이 군사 기밀을 적에게 넘겼는데, 그 애인에 관한 이야기다'가 된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부정 표현의 범위, ④는 생략된 행동 주체, ⑤는 관형절의 수식 대상을 다르게 잡을 수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문장이 자연스럽게 읽힌다는 사실만으로 뜻이 하나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정 표현이 있으면 부정되는 범위를 바꾸어 보고, 부사어나 관형절이 있으면 수식 대상과 행동 주체를 바꾸어 본다. 그렇게 해도 문법적으로 가능한 해석이 하나뿐인 문장을 고르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부정 범위, 수식 대상, 생략된 주체가 달라지면 구조적 중의성이 생긴다.

NoteBase

11.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① 제안을 표결에 붙여 결정하자.
② 지나가는 사람이 말을 붙여 왔다.
③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④ 소대장이 대대장에게 경례를 올려붙였다.
⑤ 모두 바지를 걷어붙이고 개울로 뛰어들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맥에 따라 '붙이다'와 '부치다'를 구별하고, '붙이다'가 들어간 합성어의 표기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부치다'는 안건이나 문제를 회의·표결 등에 넘겨 처리하게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따라서 '표결에 부치다'가 맞다.
'붙이다'는 서로 닿게 하거나 말을 걸게 한다는 뜻으로 쓰이며, '말을 붙이다'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밀어붙이다', '올려붙이다', '걷어붙이다'는 '붙이다'를 포함한 올바른 합성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제안을 표결에 붙여'의 '붙여'가 틀렸다. 제안을 표결에 넘겨 결정한다는 뜻이므로 '제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하자.'로 고쳐야 한다.
② O — '말을 붙이다'는 상대에게 말을 걸다는 뜻이므로 '말을 붙여 왔다'는 올바른 표기이다.
③ O — '밀어붙이다'는 여유를 주지 않고 계속 몰아붙인다는 뜻의 합성어이므로 올바른 표기이다.
④ O — '올려붙이다'는 힘차게 올려서 붙인다는 뜻으로, '경례를 올려붙였다'는 올바른 표기이다.
⑤ O — '걷어붙이다'는 소매나 바짓가랑이 등을 말아 올린다는 뜻이므로 '바지를 걷어붙이고'는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표결에 붙여'는 발음이 비슷한 '붙이다'와 '부치다'를 혼동하게 만든 표현이다. 안건을 회의나 표결에 넘긴다는 문맥에서는 반드시 '부치다'를 쓴다. 반면 ②~⑤는 모두 '붙이다' 또는 이를 포함한 합성어이므로 '부치다'로 바꾸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안건·문제·제안을 회의나 표결에 넘기는 뜻이면 '부치다'로 판단한다. 말을 걸거나, 어떤 동작을 세게 이어 가거나, 옷자락을 말아 올리는 표현이면 '붙이다'가 들어간 말인지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안건은 표결에 '부치고', 말은 사람에게 '붙인다'.

NoteBase

12.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gap: 갭
㉡ bridge: 브릿지
㉢ headlight: 해드라이트
㉣ barricade: 바리케이드
㉤ top class: 톱 크래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영어 외래어를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한글 표기로 옮겼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래어 표기는 원어의 철자 모양이 아니라 원어의 발음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정한다. 각 항목의 바른 표기는 ㄱ gap: 갭, ㄴ bridge: 브리지, ㄷ headlight: 헤드라이트, ㄹ barricade: 바리케이드, ㅁ top class: 톱 클래스이다. 따라서 옳은 항목은 ㄱ과 ㄹ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의 ‘갭’은 맞지만 ㄴ의 ‘브릿지’가 틀렸다. ‘bridge’는 ‘브리지’로 적으므로, 옳은 항목의 조합은 ‘ㄱ, ㄹ’이다.
② X — ㄱ의 ‘갭’은 맞지만 ㄷ의 ‘해드라이트’가 틀렸다. ‘headlight’는 ‘헤드라이트’로 적으므로, 옳은 항목의 조합은 ‘ㄱ, ㄹ’이다.
③ O — ㄱ ‘gap: 갭’과 ㄹ ‘barricade: 바리케이드’는 모두 바른 외래어 표기이다.
④ X — ㄴ의 ‘브릿지’와 ㅁ의 ‘톱 크래스’가 모두 틀렸다. 각각 ‘브리지’, ‘톱 클래스’로 고쳐야 하며, 옳은 항목의 조합은 ‘ㄱ, ㄹ’이다.
⑤ X — ㄹ의 ‘바리케이드’는 맞지만 ㅁ의 ‘톱 크래스’가 틀렸다. ‘top class’는 ‘톱 클래스’로 적으므로, 옳은 항목의 조합은 ‘ㄱ, ㄹ’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bridge’를 실제 발음과 비슷해 보이는 ‘브릿지’로 적거나, ‘head’를 철자에 끌려 ‘해드’로 적기 쉽다. 또한 ‘class’를 ‘크레스’로 잘못 옮기지 않고 ‘클래스’로 적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외래어의 표기를 하나씩 O/X로 판정한 뒤, 맞는 항목만 묶어 선택지의 조합과 대조한다. 이 문제에서는 갭(O), 브릿지(X→브리지), 해드라이트(X→헤드라이트), 바리케이드(O), 톱 크래스(X→톱 클래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갭·브리지·헤드라이트·바리케이드·톱 클래스가 바른 표기이다.

NoteBase

13.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같은 것은?

그 녀석은 생긴 품이 제 아버지를 닮았다.

① 허름한 옷을 입은 여인의 품에는 두어 살 가량 난 애가 안겨 있었다.

② 겨울옷은 품이 넉넉해야 다른 옷을 껴입을 수 있다.

③ 이 마을의 모든 머슴들은 품 갚기를 함으로써 일을 줄여 나가고 싶어 한다.

④ 옷 입는 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⑤ 어머니는 이 집 저 집에 품을 팔아 우리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셨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다의어 '품'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품'은 문맥에 따라 사람의 생긴 모양이나 태도, 두 팔로 안을 때의 가슴과 팔 안쪽, 옷의 너비나 여유, 일을 하는 데 드는 힘이나 노동력 등을 뜻한다. 기준 문장의 '생긴 품'은 '생긴 모양'이라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여인의 품'에서 '품'은 두 팔로 안을 때의 가슴과 팔 안쪽을 뜻한다. 기준 문장과 같은 뜻이 아니며, 바꾸어 말하면 '여인의 품속에는 아이가 안겨 있었다'이다.
② X — '겨울옷은 품이 넉넉해야'에서 '품'은 옷의 너비나 몸통 부분의 여유를 뜻한다. 기준 문장과 같은 뜻이 아니며, 바꾸어 말하면 '겨울옷은 옷의 너비가 넉넉해야 한다'이다.
③ X — '품 갚기'에서 '품'은 일을 하는 데 드는 힘이나 노동력을 뜻한다. 기준 문장과 같은 뜻이 아니며, 바꾸어 말하면 '서로 노동력을 주고받아 일을 해 나가려 한다'이다.
④ O — '옷 입는 품'의 '품'은 옷을 입는 모양이나 태도를 뜻한다. 기준 문장의 '생긴 품'도 사람의 생긴 모양을 뜻하므로 의미가 같다.
⑤ X — '품을 팔아'에서 '품'은 삯을 받고 제공하는 노동력을 뜻한다. 기준 문장과 같은 뜻이 아니며, 바꾸어 말하면 '남의 일을 해 주고 삯을 받아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셨다'이다.

오답 포인트

'품'이라는 형태가 모두 같다는 점이 함정이다. 특히 ①의 '품'은 품속, ②의 '품'은 옷의 너비, ③과 ⑤의 '품'은 노동력이라는 뜻이므로 '사람의 모양·태도'를 뜻하는 기준 문장과 다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단어를 문맥에 맞는 쉬운 말로 바꾸어 본다. 기준 문장의 '품'을 '모양'으로 바꾼 뒤 각 선지에도 '모양'을 넣어 자연스러운지를 확인하면 ④만 같은 의미임을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생긴 품·옷 입는 품은 '모양이나 태도', 품에 안기다는 '품속', 옷의 품은 '너비', 품 갚기·품을 팔다의 품은 '노동력'이다.

NoteBase

14. 다음 글에서 '큰오빠'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옳은 것은?

> 그러나 정작 큰오빠 스스로가 자신이 그려 놓은 신화에 발이 묶이고 말았다. 공장에서 돈을 찍어 내서라도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던 시절에는 우리들이 그의 목표였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실패할 수 없도록 이를 악물게 했던 힘은 그가 거느린 대가족의 생계였었다. 하지만 지금은 동생들이 모두 자립을 하였다. 돈도 벌 만큼 벌었다. 한때 그가 그렇게 했듯이 동생들 또한 젊고 탱탱한 활력으로 사회 속에서 뛰어가고 있었다. 저들이 두 발로 달릴 수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인가, 라고는 묻고 싶지 않지만 노쇠해 가는 삶의 깊은 구멍은 큰오빠를 무너지게 하였다. 몇 년 전의 대수술로 겨우 목숨을 건진 이후부터는 눈에 띄게 큰오빠의 삶이 흔들거렸었다. 이것도 해선 안 되고 저것도 위험하며 이러저러한 일은 금하여라, 는 생명의 금칙이 큰오빠를 옥죄었다. 열심히 뛰어 도달해 보니 기다리는 것은 허망함뿐이더라는 그의 잦은 한탄을 전해 들을 때마다 나는 큰오빠가 잃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수없이 유년의 기록을 들추면서 위안을 받듯이 그 또한 끊임없이 과거의 페이지를 넘기며 현실을 잊고 싶어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이 시대에서 멀어지는 연습을 하는지도.
>
> 머지않아 여관으로 변해 버릴 집을 둘러보며, 집과 함께해 온 자신의 삶을 안주삼아 쓴 술을 들이켜는 큰오빠의 텅 빈 가슴을 생각하면 무력한 나 자신이 안타까웠다. 아버지 산소에 불쑥불쑥 찾아가서 죽은 자와 함께 한 병의 술을 비우는 큰오빠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도 같았다. 한 인간의 뼈저린 고독은 살아 있는 자들 중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것, 오직 땅에 묻힌 자만이 받아 줄 수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였다.
>
> - 양귀자, 「한계령」에서 -

① 인생의 큰 목표를 이룬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② 과거보다는 미래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

③ 아버지를 미워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④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고 있다.

⑤ 반복된 사업 실패로 자신을 지탱하던 가족들과 멀어졌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에 드러난 큰오빠의 현재 처지와 내면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큰오빠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동생들의 자립과 자신의 노쇠·질병을 겪으며 삶의 의미와 활력을 잃고 고독에 빠져 있다.

NoteBase

핵심 개념

인물 이해 문제에서는 과거의 행동, 현재의 처지, 서술자의 평가를 연결해야 한다. 큰오빠의 과거는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새 사업에 힘쓰던 삶이고, 현재는 병과 노쇠 속에서 희망을 잃고 과거에 기대어 현실을 잊으려는 삶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큰오빠가 자신의 '인생의 큰 목표'를 이뤘다는 내용은 없다. 글에서 큰오빠는 동생들이 자립하기 전 '우리들의 목표'였으며, 현재는 노쇠와 질병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있다. 올바르게는 '동생들이 자립하고 자신은 늙고 병든 뒤,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잊으려 한다'이다.
② X — 큰오빠는 미래를 기대하기보다 '기다리는 것은 허망함뿐'이라고 한탄하며 과거의 페이지를 넘긴다. 올바르게는 '미래보다 과거에 기대어 현실을 잊고 싶어 하는 삶을 살고 있다'이다.
③ X — 큰오빠가 아버지를 미워했다거나 그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없다. 큰오빠가 죽은 아버지와 술을 마시는 마음을 알 것 같다는 표현은 그의 깊은 고독을 드러낸다. 올바르게는 '죽은 아버지를 찾는 큰오빠의 마음에서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고독을 느낀다'이다.
④ O — 큰오빠는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사업 실패에도 다시 힘을 냈지만, 현재는 노쇠와 질병으로 삶이 흔들리고 희망을 잃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고 있다는 이해가 적절하다.
⑤ X — 사업 실패가 반복될 때 가족은 큰오빠를 억지로라도 일으켜 세운 힘이었으므로, 실패 때문에 가족과 멀어졌다고 볼 수 없다. 올바르게는 '동생들의 자립, 각자의 사회생활, 큰오빠의 노쇠와 질병으로 서로 멀어지게 되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글의 '우리들의 목표'를 큰오빠 개인이 이룬 '인생의 큰 목표'로 바꾼 선지이다. ③은 아버지를 떠올리는 장면을 미움과 자기 용서의 문제로 과도하게 해석했고, ⑤는 사업 실패 당시 가족이 오히려 큰오빠를 지탱했다는 내용을 반대로 바꾸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의 삶을 묻는 문제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나누어 본 뒤, 선지의 인과 관계가 본문에 실제로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특히 본문의 표현을 주체나 원인만 바꾸어 놓은 선지를 주의한다.

암기 포인트

큰오빠의 삶은 '가족을 지탱하던 과거의 활력'에서 '노쇠와 질병으로 의미를 잃은 현재의 고독'으로 변한다.

NoteBase

15.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 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에서 -

① '나'가 말을 건네는 대화적 상황을 가정한다.
② '할머니'는 무관심의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한다.
③ '가마니'는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을 보여준다.
④ '-겠다'라는 어미의 반복은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⑤ '기다림'은 주위를 둘러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적 화자가 '너'에게 슬픔과 기다림을 주겠다고 말하는 이유와 시어·어미의 기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 시의 '슬픔'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는 공감과 연대의 태도이다. 화자는 가난한 할머니와 얼어 죽은 노동자를 외면한 '너'가 무관심에서 벗어나 눈물을 흘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화자는 '너'라고 직접 부르며 '주겠다', '보여 주겠다'라고 말한다. 실제 대답이 제시되지는 않지만, 청자인 '너'를 앞에 둔 대화적 상황을 전제한 독백이다.

② X — '할머니'는 추위와 배고픔을 겪는 사회적 약자일 뿐, 무관심의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하는 행위의 주체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할머니는 무관심의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한다'이다. 올바르게는 화자가 할머니의 고통을 외면한 '너'의 무관심을 비판하고, '너'에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슬픔을 일깨우려 한다고 해야 한다.

③ O — '가마니 한 장'은 얼어 죽은 노동자에게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관심과 배려를 상징한다.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그 최소한의 관심마저 보이지 않은 '너'의 무관심을 강조한다.

④ O — '주겠다', '보여 주겠다'와 같은 '-겠다'의 반복은 '너'에게 슬픔과 기다림을 주려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강조한다.

⑤ O — '기다림'은 '너'가 주변의 고통을 돌아보고 무관심을 깨달아 진정한 눈물을 흘리게 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을 뜻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시 속 고통의 대상인 '할머니'를 사랑을 실천하는 주체로 바꾸어 놓았다. 또한 ③의 '가마니'는 실제로 덮어 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한 장조차' 덮지 않았다는 부정 표현을 통해 마땅히 보여야 할 최소한의 관심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 유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의 인물마다 '말하는 주체', '비판받는 대상', '고통받는 대상'을 구분하고, 선지가 그 역할을 서로 바꾸었는지 확인한다. 반복되는 종결 어미는 화자의 태도를, 부정 표현과 결합한 사물은 실현된 행동이 아니라 결핍된 가치가 무엇인지 중심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할머니·동사자=고통받는 약자, '너'=무관심한 대상, '나'=공감과 연대를 일깨우려는 화자이다.

NoteBase

16. 밑줄 친 ㉠~㉤ 중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중국에서 발생한 ㉠유교(儒校)는 주변 지역인 한국, 일본, 베트남 등에 오랜 시간에 걸쳐 보급되었다. 이 지역을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은 유교의 영향을 가장 깊이 받은 곳이다. 일본은 유학은 받아들였지만 유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학문(學文)으로서 또는 통치자의 ㉢교양(敎養)으로서는 유교를 ㉣수용(收容)했지만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예로서는 유교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는 ㉤이론(異論)도 있겠지만, 일본의 경우 관혼상제와 일상의 생활 규범 또는 가족과 친족 제도 등에서 비유교적인 면이 두드러진다. 베트남의 유교 수용도 일본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일상 생활에서는 불교의 영향이 지배적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한자어의 뜻을 확인하여 음이 같은 다른 한자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사상이라는 뜻이므로 儒敎로 쓴다. 학문은 배우고 묻는다는 뜻의 學問이다. 교양은 가르치고 기른다는 뜻의 敎養이다. 수용은 어떤 사상이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뜻일 때 受容으로 쓴다. 이론은 서로 다른 의견이라는 뜻일 때 異論으로 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과 ㉣은 모두 잘못된 표기이다. 儒校의 校는 학교를 뜻하므로 문맥에 맞지 않으며, 유교는 儒敎로 고쳐야 한다. 사상이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뜻의 수용은 收容이 아니라 受容으로 고쳐야 한다. 옳은 조합은 ㉢, ㉤이다.

② X — ㉤ 이론(異論)은 옳지만 ㉠ 유교(儒校)는 잘못되었다. 유교는 儒敎로 고쳐야 하므로 옳은 조합은 ㉢, ㉤이다.

③ X — ㉢ 교양(敎養)은 옳지만 ㉡ 학문(學文)은 잘못되었다. 학문은 學問으로 고쳐야 하므로 옳은 조합은 ㉢, ㉤이다.

④ X — ㉡ 학문(學文)과 ㉣ 수용(收容)이 모두 잘못되었다. 각각 學問과 受容으로 고쳐야 하며, 옳은 조합은 ㉢, ㉤이다.

⑤ O — ㉢ 교양(敎養)은 가르치고 기른다는 뜻이고, ㉤ 이론(異論)은 서로 다른 의견이라는 뜻이므로 두 표기 모두 문맥에 맞다.

오답 포인트

한자의 음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뜻을 확인하지 않으면 儒校·學文·收容을 옳다고 보기 쉽다. 특히 收容은 사람이나 물건을 일정한 장소에 받아들여 넣는 뜻이고, 사상이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문맥에서는 受容을 쓴다는 차이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한자 하나씩 뜻을 풀어 앞뒤 문맥과 연결한다. 가르침은 敎, 배우고 물음은 學問, 사상·문화의 받아들임은 受容, 다른 의견은 異論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유교는 儒敎, 학문은 學問, 교양은 敎養, 받아들임은 受容, 다른 의견은 異論이다.

NoteBase

17. 다음 글의 밑줄 친 ㉠~㉤ 중 띄어쓰기가 모두 올바른 문장은?

> 필자에게 가장 아끼는 물건이 무어냐고 묻는다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만년필을 들 수 있겠다. ㉠값이∨얼마나∨나가는∨지는∨잘∨모른다. ㉡허리∨부분에∨금이∨가∨테이프로∨감아∨놓은∨이∨고물∨만년필은∨20여년∨전에∨친구가∨선물한∨것이다. ㉢그동안∨수차례∨잃어버린∨적도∨있으나∨용케도∨되돌아온,∨그래서∨나와는∨전생에∨무슨∨연이라도∨있는∨듯한∨물건이다.
>
> ㉣만신창이가∨된∨이∨만년필은∨그동안∨박사학위∨논문과∨네∨권의∨저서를∨비롯하여∨여러∨잡문을∨쓰는데∨크게∨기여하였다. ㉤그래서∨지금은∨이∨만년필이∨아니고는∨어떤∨글도∨쓸수∨없을만큼∨절대적인∨존재가∨되고∨말았다. 앞으로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게 된다 해도 이름 그대로 만년까지 간직할 참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어미와 조사, 수를 나타내는 말 뒤의 단위 명사,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밑줄 친 부분의 모든 띄어쓰기가 맞아야 정답이 된다.

핵심 개념

'-는지'는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이고, 그 뒤의 보조사 '는'도 붙여 '-는지는'으로 쓴다.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 명사는 띄어 쓰므로 '20여 년'으로 쓴다.
'수', '데', '만큼'이 의존 명사로 쓰이면 앞말과 띄어 쓴다. 따라서 '쓸 수', '쓰는 데', '없을 만큼'으로 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의 '나가는 지는'이 잘못되었다. 여기서 '-는지'는 연결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이고, 보조사 '는'도 이어 붙여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는 잘 모른다.'로 써야 한다.
② X — ㄴ의 '20여년'이 잘못되었다. '여'는 수량을 나타내는 접미사이므로 '20'에 붙이지만, 단위 명사 '년'은 띄어 '20여 년 전에'로 써야 한다.
③ O — ㄷ의 '그동안', '수차례', '잃어버린', '적도', '나와는', '연이라도', '있는 듯한'은 모두 올바르게 띄어 썼다. 특히 의존 명사 '적'은 앞말과 띄고 조사 '도'는 '적'에 붙이며, '듯하다'가 추측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으로 쓰인 '있는 듯한'도 띄어 쓴다.
④ X — ㄹ의 '박사학위'와 '쓰는데'가 잘못되었다. 각각 '박사 학위', '쓰는 데'로 띄어 '그동안 박사 학위 논문과 네 권의 저서를 비롯하여 여러 잡문을 쓰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로 써야 한다. 여기서 '데'는 '일'이나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⑤ X — ㅁ의 '쓸수'와 '없을만큼'이 잘못되었다. '수'와 '만큼'이 모두 의존 명사이므로 '어떤 글도 쓸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로 써야 한다.

오답 포인트

ㄱ에서는 어미 '-는지'를 의존 명사처럼 띄기 쉽고, ㄴ에서는 접미사 '여'와 단위 명사 '년'을 한 덩어리로 보기 쉽다. 또한 ㄹ과 ㅁ에서는 '데', '수', '만큼'이 의존 명사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한 군데라도 틀리면 '모두 올바른 문장'이 아니므로 밑줄 전체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는지'처럼 어미인지 확인하여 앞말에 붙이고, 숫자 뒤의 단위 명사는 띄어 쓴다. 이어 '수·데·만큼·적'이 명사적 의미를 지닌 의존 명사인지 확인하여 앞말과 띄어 쓴다. 마지막으로 각 밑줄에서 오류가 하나라도 있는지 끝까지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어미 '-는지'는 붙이고, 단위 명사 '년'과 의존 명사 '수·데·만큼·적'은 앞말과 띄어 쓴다.

NoteBase

18. 다음 글의 ㉠과 ㉡에 들어갈 한자 성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부여는 격정의 땅이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6좌평으로 대표되는 지배귀족세력을 제거하고 힘에 겨운 토목공사를 일으킨 권위의 땅이었으며 고구려, 신라와 각축하면서 빼앗기고 빼앗기를 거듭하던 배반과 보복, 승리와 패배의 악순환으로 얼룩진 불행한 시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쫓기고 쫓기다 최후의 지점인 절벽에서 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던 땅이며 자기의 손으로 처자식의 목을 베어야 했던 비극의 자리입니다.
>
> 그러나 이 스산한 고도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고작 비극을 미화하는 감상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상은 표면에 대한 감성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극미의 조명이 아니라 승리든 패배든 그 이후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더 큰 비극에 대한 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국의 쟁패와 통일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유일한 승자는 (㉠)를 챙긴 당나라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광활한 영토를 잃어버린 거대한 상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지배자로 들어앉은 외세를 물리치기 위하여 혈흔이 채 마르지도 않은 창검을 들고 또다시 전장을 달려야 했던 민초들의 비극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어리석은 민족사의 복판에서 백제의 패망이 조명되고 민족의 비극이 반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모한 격정이 낳은 (㉡)의 어리석은 역사를 뉘우치지 않는 한 백마강의 비극은 더 이상 과거의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제의 역사는 엊그제 그끄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
> 지금도 8월이 되면 유왕산에는 제를 올려 당나라로 압송되던 왕과 1만 수천여 포로들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제땅에서 파내어야 할 진정한 유적이며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		㉡
① 蚌鷸之爭	-	鳥足之血
② 漁父之利	-	小貪大失
③ 塞翁之馬	-	孤掌難鳴
④ 緣木求魚	-	晩時之歎
⑤ 錦上添花	-	雪上加霜

정답 2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문맥에 드러난 상황을 한자 성어의 뜻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다투는 두 세력 사이에서 제삼자가 이익을 얻는 상황이고, ㉡은 작은 욕심을 부리다가 더 큰 것을 잃는 상황이다.

핵심 개념

어부지리(漁父之利): 둘이 다투는 사이에 제삼자가 힘들이지 않고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다. 글에서는 고구려·신라·백제가 다투는 동안 당나라가 이익을 챙긴 상황에 해당한다.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이다. 글에서는 무모한 욕심과 격정 때문에 백제가 패망한 상황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방휼지쟁(蚌鷸之爭)은 둘이 서로 다투다가 제삼자에게 이익을 빼앗기는 상황이고, 조족지혈(鳥足之血)은 매우 적은 분량을 뜻한다. 글의 빈칸은 각각 제삼자가 얻은 이익과 작은 욕심으로 인한 큰 손실을 가리키므로, ㉠은 어부지리(漁父之利), ㉡은 소탐대실(小貪大失)로 고쳐야 한다.

② O
어부지리는 여러 나라가 다투는 사이 당나라가 이익을 챙긴 상황과 맞고, 소탐대실은 작은 욕심 때문에 나라의 패망이라는 큰 손실을 부른 어리석음과 맞는다.

③ X
새옹지마(塞翁之馬)는 인생의 길흉화복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고, 고장난명(孤掌難鳴)은 혼자서는 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뜻이므로 두 빈칸의 문맥과 맞지 않는다. ㉠은 어부지리, ㉡은 소탐대실로 고쳐야 한다.

④ X
연목구어(緣木求魚)는 방법이 잘못되어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고, 만시지탄(晩時之歎)은 때가 늦은 뒤에 하는 탄식을 뜻하므로 문맥과 맞지 않는다. ㉠은 어부지리, ㉡은 소탐대실로 고쳐야 한다.

⑤ X
금상첨화(錦上添花)는 좋은 일에 좋은 일이 더해짐을 뜻하고,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불행한 일 위에 또 불행한 일이 겹침을 뜻하므로 문맥과 맞지 않는다. ㉠은 어부지리, ㉡은 소탐대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의 상황을 다툼 자체에 초점을 두어 방휼지쟁으로 고르기 쉽다. 그러나 빈칸 바로 앞의 '유일한 승자', 뒤의 '챙긴 당나라'가 핵심이므로 다툼의 결과 제삼자가 얻은 이익을 뜻하는 어부지리가 들어가야 한다. ㉡은 단순한 불행의 연속이 아니라 무모한 욕심 때문에 더 큰 것을 잃은 인과 관계이므로 소탐대실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주변에서 원인과 결과를 먼저 찾는다. '둘의 다툼 → 제삼자의 이익'이면 어부지리이고, '작은 욕심 → 큰 손실'이면 소탐대실이다. 비슷한 성어가 보여도 글이 강조하는 주체와 결과까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둘이 싸워 셋째가 이익을 얻으면 어부지리,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으면 소탐대실이다.

NoteBase

19. 다음 중 글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2015년 5월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는 인간 유전체 편집과 관련해 중요한 발의를 했다. 중국 과학자들이 인간배아 유전자 편집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직후이다. 논란의 주인공이 된 기술은 크리스퍼, 즉 저렴한 가격으로 간단하게 원하는 생물의 유전체를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이다.
>
> 크리스퍼는 생물학이 사회에 던져온 몇 가지 윤리적 논란들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 그 하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의 문제다. 우생학, 시험관 아기, 배아줄기세포로 이어온 윤리적 논란은 크리스퍼에도 재현될 것이다. 인간배아실험에 관한 초국가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과학자들이 인간배아 유전자의 편집을 시도했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크리스퍼는 소비자 우생학의 문제도 야기한다. 치명적인 유전적 질환의 치료 목적이 아니라, 자식의 유전적 자원을 증강하려는 의도로 크리스퍼 기술을 사용하는 특권층이 탄생할 수 있다. 인류는 자식을 위해 좋은 형질을 향상시키고, 나쁜 형질을 제거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
> 크리스퍼가 초래할 더 큰 문제는 생태계 교란이다. 이미 30개가 넘는 종의 유전자 편집이 가능하다고 보고되었고, 그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 생명공학의 생태계 교란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는 오래된 논란이고, 크리스퍼는 이 논란에 기름을 부을 예정이다.

① 유전체 편집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② 크리스퍼 기술의 사용에 대한 국제적 협약이 필요하다.

③ 과학기술이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한 원인이다.

④ 생명과학의 발달이 국가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⑤ 생명공학 문제의 해결에는 특권층의 결단이 요구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크리스퍼 기술이 낳는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글의 내용과 정확히 대응시키고, 문제 상황을 해결책으로 뒤집은 선지를 가려내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글은 크리스퍼의 주요 문제로 인간 대상 실험을 규율할 초국가적 장치의 부재, 소비자 우생학에 따른 특권층의 탄생, 유전자 편집 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제시한다. 특히 '특권층의 탄생'은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크리스퍼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글은 크리스퍼가 인간 실험, 소비자 우생학, 생태계 교란 등 여러 윤리적 논란을 일으킨다고 하므로 유전체 편집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② O — 인간 배아 실험에 관한 초국가적 법률이 없다는 점을 문제의 배경으로 제시하므로, 국가를 넘어 크리스퍼 사용을 규율할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③ O — 유전자 편집이 가능한 생물 종이 계속 늘고 생태계 교란 논란이 커진다고 했으므로, 과학기술이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④ O — 국가마다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에 대한 규율과 대응이 다른 상황에서 한 국가의 연구가 국제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생명과학 기술의 발달이 국가 간 갈등을 낳아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해는 가능하다.
⑤ X — 틀린 표현은 '특권층의 결단이 요구된다'이다. 글에서 특권층은 좋은 형질은 강화하고 나쁜 형질은 제거하려는 소비자 우생학 때문에 탄생할 수 있는 문제적 집단이다. 올바르게는 '생명공학 문제의 해결에는 소비자 우생학을 통제하고 특권층의 탄생을 막을 사회적·윤리적 규제가 요구된다'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⑤는 글에 실제로 나온 '특권층'이라는 말을 이용해 그 역할을 뒤집었다. 글은 특권층의 결단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지 않고, 유전적 자원을 증강하려는 행위가 특권층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선지의 핵심 명사가 글에 있는지만 보지 않고, 그 명사가 원인·문제·결과·해결책 가운데 어떤 역할로 쓰였는지를 확인한다. 글에서 부작용으로 제시된 대상을 선지가 해결 주체로 바꾸면 적절하지 않다.

암기 포인트

크리스퍼의 세 쟁점은 인간 실험의 규율, 소비자 우생학, 생태계 교란이며, 특권층은 해결책이 아니라 우생학이 낳을 수 있는 문제이다.

NoteBase

2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연못에 비오는 소리 그 무엇이 놀랍관대
> 임 보러 가던 꿈이 못 보고 깨돗던고
> 잎 위에 구슬만 담겨 눈물 듣듯 하더라

① 임과 헤어져 있는 괴로움이 해소되고 있다.
② 초·중장에 비와 서정 자아 사이의 대립이 있다.
③ 종장에 와서 초·중장의 시상이 전환하고 있다.
④ 비와 서정 자아의 눈물이 직유로 맺어져 있다.
⑤ 임을 그리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조에서 시적 상황과 자연물의 대응을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와 시상 전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화자는 꿈속에서 임을 만나러 가다가 연못에 비 오는 소리에 깨어 임을 만나지 못한다. 종장의 잎 위 빗방울은 화자의 눈물과 대응하며, 임을 만나지 못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 '괴로움이 해소되고 있다'는 이해가 부적절하다. 화자는 비 때문에 꿈에서 깨어 임을 만나지 못하고, 잎 위의 빗방울을 눈물처럼 바라본다. 따라서 괴로움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임을 만나지 못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으로 심화된다. 올바르게는 '임과 헤어져 있는 괴로움이 심화되고 있다'이다.
② O - 화자는 꿈속에서 임을 보러 가지만 비가 내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 임을 만나지 못한다. 임과의 만남을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비가 좌절시키므로 비와 화자 사이의 대립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③ O - 초장과 중장에서는 비 오는 소리와 그로 인한 꿈의 중단을 제시하고, 종장에서는 잎 위의 빗방울을 눈물에 빗대어 화자의 슬픔을 드러낸다. 청각적 상황에서 시각적 심상과 정서의 표현으로 시상이 전환된다.
④ O - 잎 위에 맺힌 빗방울인 '구슬'은 '눈물'에 비유된다. 비의 물방울과 화자의 슬픔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자연물과 화자의 정서가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⑤ O - 화자는 꿈속에서라도 임을 보러 가려 하고, 임을 만나지 못한 뒤 빗방울을 눈물처럼 바라본다. 이는 임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드러낸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함정은 시의 끝에서 눈물이 제시된 것을 감정의 해소로 오해하게 하는 데 있다. 이 작품의 눈물은 슬픔을 씻어 내는 장치가 아니라, 만나지 못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구체화하는 장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자의 소망, 그 소망을 방해하는 사건, 마지막 자연물의 의미를 차례로 연결한다. 자연물이 눈물과 대응하면 그 정서가 해소되는지보다 심화·구체화되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비 오는 소리 때문에 꿈에서 깸 → 임을 만나지 못함 → 잎 위 빗방울이 눈물과 대응함 → 그리움과 슬픔이 심화됨.

NoteBase